

당신은
또 다른
자신의 인생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차 례

1. 영원을 향한 인간의 본성, 그리고 나	1
2. 인간은 누구인가?	2
3.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5
4. 당신은 이렇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5.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방법	13

1. 영원을 향한 인간의 본성, 그리고 나

인간은 누구나 죽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앙심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 없이 영원에 대한 동경심이 있으며 죽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옛날부터 막연하게나마 신에게 행운을 비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신의 도움으로 풍요를 누리며 장수하여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의 특징입니다. 동물세계에서는 이런 종교성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을 닮았고 사람 흉내를 잘 낸다 할지라도 원숭이에게는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서만 찾아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죽으면 완전히 끝나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극의 1막이 끝나면 다음에 제 2막이 열리는 것처럼, 인생도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는 인생의 제 2막이 다른 영적 세계에서 시작 됩니다.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는데, 하나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과 기쁨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지내는 비참한 세계입니다. 첫 번째를 천국이라 하고, 두 번째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원하지 않은 상관 없이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운명적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은 후에는 좋은 세계에 들어가기로 본능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래 살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지혜와 노력과 계획을 동원하여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러나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당장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나는 과연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슨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

Q 1: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죽게 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Q 2: 만일 당신이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질문 하시기를, “내가 무슨 이유로 너를 천국에 들어 보내랴?”하고 질문하신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 인간은 누구인가?

1).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시고” (창1:27)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점들이 있어서 이성적이며 감정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각이 있고(로마서1:19),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이며(마태복음 10:28), 인간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요한복음 3:16, 요한일서 4:10).

2). 그러나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서는 인간 스스로 “책임”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와 책임”을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한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2:16-17)

이 하나님의 선포는 인간이 살고 죽는 문제가 담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인간이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한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만일 그 법을 파기하고 불순종하면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은 뱀(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 금지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최초의 범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언대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육체가 살아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1).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것처럼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육신과 영혼”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사망은 그들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전가(impute)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5:12)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범죄였으며 아담 한 사람으
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은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말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에 기준 하여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판단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덕과 윤리는 민족마다 문
화마다 다르며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프리카의 일부다처제(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
제도) 문화권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하여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
며 그 사회에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기타
나라에서 그런 결혼생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게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취급 받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는 좋은 사람이지만 한국에서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한 권총 강도가 사람을 죽이고 많은 돈을 강탈하여 집
에 들어갈 때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좋은 장난감과 아내의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들어 갔다면, 그는 그 가정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보일 것입
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
간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권총강도의 아내와 자식들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며 좋은 남편, 좋은 아버
지라고 평가 하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죄인이며 그들의 판단
은 잘못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주고 받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은
인간 쪽에서 볼 때 좋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불의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죄
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
님 앞에서 죄인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시편14:3=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전도서7:20=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사야64:6 =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righteousness)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 . .”

로마서3:23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으로 되어가기(becoming a
sinner) 때문이 아니라 아담의 원 죄(original sin)가 전가되어서 죄인으로 태
어났기(born as a sinner) 때문입니다.

시편51:5 =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58:3 =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여 나면서부터 걸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레미야17:9-10 =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 . .”

창세기8:21 = “. . .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 .”

그러므로 죄는 각 사람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타고난
죄의 본성을 어린 아이들의 행동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은 이 죄의 본성을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합
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1:8,10 =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 .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
말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 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누구나 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합니
다(에베소서2:1). 인간이 범죄하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소망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에베소서2:12).

3).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인간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
는 사이에 영원한 사망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망은 현세에서의 죽
음과 함께 내세의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 말하는 “사망”을 “영원한 사망”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의 기분을 몹시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9:27 =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태복음10:28 =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박국1:13 =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 . .”

에스겔 18:4 =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 . .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요한계시록19:20 =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 . .”

마가복음9:48 =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마치 벌레와 구더기 같다고 묘사 — 욥기25:6)

마태복음25:41 = “. . .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마가복음9:43 = “지옥 꺼지지 않는 불”

데살로니가후서1:8-9 =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영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누가복음16:19-31 =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천국과 지옥의 장면)

사람이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불멸의 영혼이 있으며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면 지구상에 존재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고린도전서15:51-52, 요한계시록20:11-12).

3.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1).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흑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피부를 희게 만들 수 없으며 표범이 자기 몸의 점 무늬를 스스로 없앨 수 없는 것같이, 인간도 자기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예레미야13:23). 그 이유는 인간 속에 아담때부터 전가되어 내려 오는 원 죄가 있을 뿐 아니라(로마서5:12) 그 원 죄로 인해서 인간 속에 죄의 성품과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로마서3:23). 하나님은 선언하시기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전도서7:20).

갈라디아서2:16 = “. . .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야고보서2:10 =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stumbles)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레미야13:23 = “구스인(Ethiopian 흑인) 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는뇨?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 흑인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점 무늬를 스스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죄에 익숙한 인간도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씀).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영영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말로만 듣던 지옥의 형벌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대의 걸작품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시며 인간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뿐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개입하여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파괴를 일삼는 사탄은 인간을 불행으로 몰아 넣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딜레마에 빠뜨려 궁지에 몰리도록 시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지만 “정녕 죽으리라”고 한 번 선언하신 말씀대로 인간을 영영히 멸망 시켜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약간의 실수로 돌리고 자신의 선언을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며 거짓을 묵인하고 넘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통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 . .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출애굽기34:7). 인간이 사탄의 흉계에 말려 들어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선언대로 인간을 처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여기서 끝나고 만다면 사탄은 대 승리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사탄에게 패배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사탄에게 몰려서 딜레마에 빠지시거나 패배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대표원리), 죄 없는 의로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영영한 형벌의 대가로 죄인처럼 처형당하는 것입니다(대표원리).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그러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원 죄가 없으십니다. 또 그에게는 죄의 성품이나 부패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이사야53:1-12, 사도행전8:32, 마가복음15:4-5).

하나님께서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요한복음3:16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3:18 =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디모데전서1:15 =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베드로전서2:24 = “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3:18 =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3).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뿐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인간의 불행과 고통에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종교에 심취하거나 선을 행하여 의로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이 주장하는 도덕과 윤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구원의 길들이 사람의 보기에는 옳은 듯 하나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인간은 여전히 영원한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사야43:11 =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45:22 = “땅 끝의 모든 백성들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디모데전서2:5 =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행전4:12 =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잠언14:12 =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요한복음14:6 =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11:28 =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6:37 =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자기를 마음 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요한복음14:1-4). 그 천국은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요한계시록21:4). 거기에는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고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 두 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하였습니다(요한계시록22:1-2). 그 실제의 광경은 우리가 아직 볼 수 없으나 현세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영화로운 곳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값 없이 무료로 우리에게 주십니다(It's Free! - 이사야55:1-3).

요한복음5:24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14:1-4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없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이르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빌립보서3:20 =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요한계시록14:13 = “. . . 자금 이후로(from now on)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고린도후서5:8 =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 메시지를 읽고 계시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나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나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27:1 =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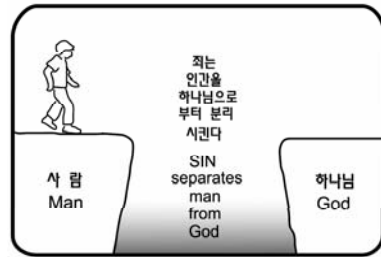
고린도후서6:2 =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4. 당신은 이렇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예레미야31:3 - “무궁한 사랑”)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그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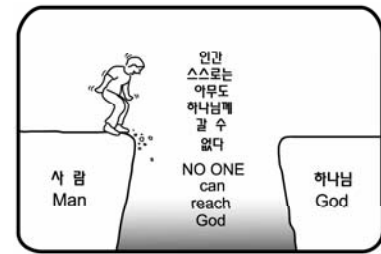
그것은 “...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your iniquities have made a separation between you and your God)...”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사야 59:2)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는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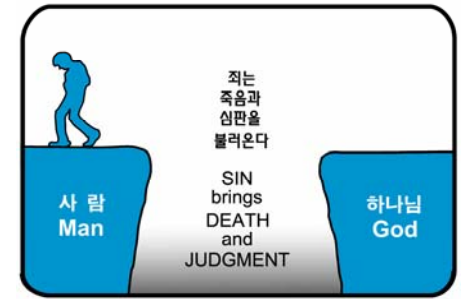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후서1:8-9)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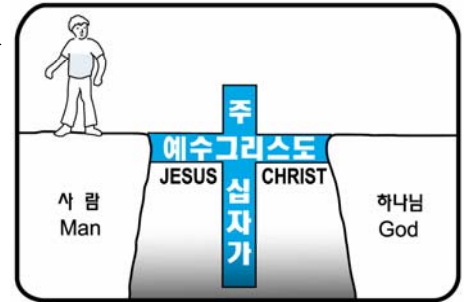
“흠(body=육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spirit=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12:7)

인간은 각자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멸망을 향해 살고 있습니다(잠언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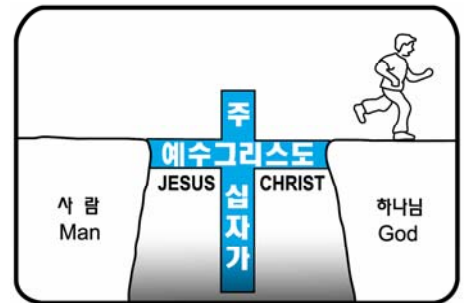
그러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요한복음14:6).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목숨을 버리시므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로 다리 역할을 하셨습니다(디모데전서2:5).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to bring us to God)” (베드로전서3:18)

그러면 이말씀은 각 사람에게 해당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 속에 친히 영접하여 모셔들이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그 사람만이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1:12)

- Belief consists of accepting something, not doing something

5.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방법 (마음의 묵상과 결단의 단계)

당신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특별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머리 숙여 묵상하며 솔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주의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면, 당신은 다음에 나오는 단계를 한 단계씩 만 시행해야 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읽고 충분히 이해한 다음, 진실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공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 단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확실히 한 다음,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 단계들을 공감하지 못하신다면, 이 책자의 처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내용을 다시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내가 진지하게 알아 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살펴보시고 여기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변화(conversion)는 칭찬과 보상을 받을만한 행위가 아니고, 신약 성경이 증거 하는 대로 (한 인간이) 진심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강한 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던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휼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휼을 떠나서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목적도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레온 모리스〉

1단계: 죄의 발견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죄이며, 그렇게 행하는 자는 죄인입니다. 언제든지 나 자신과 나의 욕망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는 나의 감정의 느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 행할 때 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으며 이웃에 대하여 죄를 지었고, 나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어왔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었고,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사생활에서,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가운데 죄를 지어 왔으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많이 했고, 또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지내 왔습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지

어 왔으며, 그것을 하나 하나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 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 죄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헛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리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서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단계: 죄를 슬퍼함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를 지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죄악 된 길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 된 길을 따랐던 나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것은 그 죄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죄들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나의 모든 잘못을 고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나를 지적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셨고(요한계시록20:11-15) 친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애원하고 눈물을 흘려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록된 그 모든 죄들은 지워질 수 없으며 그대로 남아 있게 될 것을 압니다. 오직 한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요한복음6:37)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의 자비와 공휼로 죄 용서함 받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3단계: 죄의 고백

나는 나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된 일들을 뉘우치고 후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털어놓고 그 죄들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무도 몰랐으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도 몰랐습니다.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무지한 가운데서 것처럼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 무지함이 나의 변명이 될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벌써부터 그

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변명할 여지 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하며,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슬픈 것을 나타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지만 동시에 나의 가족들이나, 나의 친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지른 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주위의 성도들이나 가족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음을 부끄러움 없이 말하겠습니다.

4단계: 죄를 멀리 보냄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는 지금 그 모든 죄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죄 짓는 것을 포기합니다. 과거에 그 죄들이 나에게 큰 즐거움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 모든 유혹을 떨쳐 버리고 다시는 그것들에게 미련을 두거나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5단계: 죄 용서를 간구함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고 거절하면서, 또 그의 계명을 거역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악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나를 깊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편 없는 죄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가치도 없는 나를 긍휼이 여기셔서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6단계: 헌 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면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7단계: 믿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써 나를 위하여, 나 대신에, 나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나는 지금 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는 약속 때문에 구제 받을 길이 열렸고, 이 초라한 죄인이 구원을 바라보며 구주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 줄을 나는 압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쓰라린 고통을 당하시고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게 되었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 죄인을 주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음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

(무릎을 꿇고)

“주 예수님, 저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고, 영원한 불행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님, 이제 저는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몸소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주님 저는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죄악에서 돌이키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저는 이 시간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저의 마음 속에 들어 오셔서 영원토록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위의 7 단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마음 속에 영접하셨으면, 이제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 다. 당신은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아래에 낱자를 적으셔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대의소리미션

VOAM ONLINE MISSION

PO Box 2185

Garden Grove, CA 92842 • (213) 503-4850